

대한산업보건협회의 미래

그동안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직접적인 인연이 없던 필자를 부회장으로 선출해 준 의미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경험했던 산업보건에 대한 경륜으로 협회 발전에 기여해 달라는 회원들의 뜻이 담겼다고 생각한다.

비상근 부회장이지만, 협회의 등기임원으로서 협회의 발전과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다.



교집합을 이루는 협회의 모든 회원과 직원들이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실행했다. 또한 각 대학의 예방의학교실의 산업의학을 전공한 교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 협회가 성장하고 발전했다. 1963년 창립 이래, 협회의 성장과정 한걸음 한걸음이 한국 산업보건의 발전사이다.



강성규

대한산업보건협회 부회장,
가천의대 교수

지난 7월 12일 대전에서 개최된 대한산업보건협회 임시총회에서 비상근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동안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직접적인 인연이 없던 필자를 부회장으로 선출해 준 의미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경험했던 산업보건에 대한 경륜으로 협회 발전에 기여해 달라는 회원들의 뜻이 담겼다고 생각한다. 비상근이어서 공식적으로는 일 년에 두 차례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 외에 협회의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없지만 협회의 등기임원으로서 협회의 발전과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다.

협회는 회원과 직원이 교집합을 이루고 있다. 협회 회원이면서 직원인 분도 있고 직원이 아닌 분이 있다. 직원이지만 회원이 아닌 분이 있다. 모두 협회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분들이다. 그러나 협회에는 또 다른 지원 세력이 있다. 산업보건을 오래 해 온 많은 분들이다. 이들은 협회 회원도, 직원도 아니지만 협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어떤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협회 30년사, 40년사, 50년사를 찾아보는 기회가 있었다. 1963년 창립 이래, 협회의 성장과정 한걸음 한걸음이 한국 산업보건의 발전사이다.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기관이라는 절대 명제 하에 이에 부응하는

산업보건업무는
기술적인 것이
주를 이루지만
근로자와 교감하는
감성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



업적도 있었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아쉬운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크게 보면 모든 회원과 직원들이 한국의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실행했다.

초창기 협회의 운영은 정부의 지원으로 시작됐으나 전국 각 대학 예방의학교실의 산업의학을 전공한 교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 협회가 성장하고 발전했다. 초기 30년, 즉 1990년대 한국 산업보건사의 분수령이 된 원진레이온 사건 그리고 그에 따른 직업병예방종합대책 이전에는 정부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할 여력이 없었다. 이 암흑기를 지탱해 온 것은 협회의 크나큰 업적이다. 이후 30년간 협회의 노력과 업적도 눈부시다. 다만 이때부터는 정부의 노력, 다른 민간기관의 참여가 있었기에 협회의 노력과 업적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뿐이다.

이제 새로운 30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앞으로의 30년은 이전의 60년과는 크게 다를 것으로 모두 예상하고 있다. 협회의 미래에 세 가지를 생각해 본다.

첫째는 협회 직원의 미래상이다. 미래 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산업 형태 변화로 보고 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의 발전으로 이전에는 경험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많은 일의 형태가 바뀌고,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는 직업이 있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협회의 업무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 본다.

우려도 많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과거에는 단순한 업무를 하는 직업이 사라졌는데, 이제는 기억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직업도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 협회 업무의 상당부분이 산업보건 관련 정보를 많이 습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향을 판단하고 해결하는 것인데 이것도 인공지능이 더 잘 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상용화되고 있는 5G 통신은 거리에 따른 시차를 없앴으므로 거의 실시간으로 원격조정이 가능하다. 원거리에 있는 의사가 모니터를 보고 기구를 조작하여 수술을 하는 시대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면 협회는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 필자는 산업보건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본다. 산업보건업무는 기술적인 것이 주를 이루지만 근로자와 교감하는 감성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 ‘감성이 있는 전문가!’ 이것이 협회 회원 및 직원의 미래라고 생각한다. 주변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감성이 있는 전문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살아남을 것으로 본다. 우리는 감성이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는 협회 직원간 화합과 조화이다. 전통의 산업보건은 의사, 간호사, 위생사 중심으로 이뤄졌고 현재 진행되고 있다. 협회 구성원도 별반 차이가 없다. 필자가 안전보건공단에서 근로자건강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수요에 맞는 인력과 조화로운 배치였다. 변화된 환경에 맞춰 이들 전통의 세 가지 전문 분야 외에 물리치료사와 심리상담사를 필수 요원으로 넣게 했고 이것이 현재 근로자건강센터 인력의 근간을 이룬다.

협회 초기 30년과 그 후 20년, 예방의학 및 산업의학과 교수를 비롯한 의사들의 노력은 헌신적이었다. 의사들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실무적 지침을 만들고 고쳐 산업보건을 선도하고 협회의 오늘을 이끌었다. 이제 의사의 역할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지난 몇 년간 협회가 혼란을 겪으면서 의사의 역할은 축소되고 주체에서 객체로 변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에 의사들도 변화된 시대환경을 인식해서 다른 직종의 직원들과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여 협회의 미래를 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협회 직원들도 의사를 외곽에서 지원하는 전문가로 인식하기보다는 나와 같은 미래를 공유하는 직원으로 인식하기를 기대한다.

셋째는 협회의 국제적 소통력이다. 협회의 근간은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 측정이다. 이것은 한국이 창조한 일이 아니라, 유럽국가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진 제도이다. 당연히 조직도 비슷하게 발전했다. 어떤 분은 협회가 한국만의 독특한 형태라고 했으나 필자가 아는 한 협회와 똑같은 조직이 스웨덴에도, 벨기에에도, 프랑스에도 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뿐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는 현재 산업보건사업의 효과성에 회의를 품게 됐다. 각국별로 제도를 변형하고 분화시켰다. 협회와 유사한 조직들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적응을 하고 있다. 이들은 분명 협회의 앞선 길을 갔기 때문에 이들의 변화를 보고 이들이 안고 있는 고민을 들여보면 협회의 미래가 보일 것이다.

협회에는 우수한 직원들이 많다. 그런데 아무리 우수한 사람이라도 혼자만 생각하고 고민하면 발전의 계기를 찾기 어렵다. 유사한 외국의 기관과 교류하며 상대의 변화를 이해할 때 협회의 발전 방향이 그려질 것이다.

인간이 일을 하는 한 근로자의 건강을 대상으로 하는 협회의 미래는 밝다. 다만 미래가 밝다고 해서 모두에게 저저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고 변화할 때 밝은 미래가 주어지는 것이다. 🍀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고 변화한다면
인간이 일을 하는 한
근로자의 건강을
대상으로 하는 협회의
미래는 밝다.